

문제 1

1. “(가-2)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환경적 사회적 상황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소통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고난과 극복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필요하나 과도한 낙관적 사고는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낙관성은 터무니없는 안도감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타인에 의해 내려진 비판과 평가를 경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적, 현실적요소를 고려하여 재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 낙관성은 위와 같은 경계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의 낙관성의 실현가능성을 사회적 환경적 요소와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

여기까지 사실 문단을 나눈 이유를 모르겠고, 단순한 (가-2)요약일 뿐이니까요.

현실적 낙관성,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눈 것은 잘하셨으나 둘로 구분이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제시문에 서술된 내용에 따라 3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서술이 전무합니다.

2. 따라서 대응에서도 현실적 낙관성/ 비현실적 낙관성으로 ‘결론적 대응’은 잘 났으나

결론을 이끄는 ‘근거적 대응’에서는 취약합니다. 제시문에 근거해 이 부분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해되고, 이 부분은 이 요소에 의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 서술이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네요.

근거 서술부분에서 아쉽습니다.

문제 2

1. “(라)의 통계 자료의 분석 결과는 (가-1)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낙관성과 자기 능력에 대한 현실성이 결합된, 최상의 성적을 거둔 집단은 낙관성의 정도가 높으나 현실성이 결여된, 최악의 성적을 보인 집단보다 2.5배나 높은 성적을 보인다.

다음으로, 낙관적 정도가 높은 집단은 현실성의 결합여부가 결과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낙관성의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현실성의 결합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낙관성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자신에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 정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배 해당하는 수치만큼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4집단 중 상위 2집단 모두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써 현실성은 높은 성적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높은 집단은 낙관성이 결합되었을 때 성적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현실성이 낮은 집단은 낙관성이 결합되었을 때 성적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현실인식 없이 낙관적인 태도보다 자기 능력에 대한 현실적 요소를 바탕으로 낙관성이 결합되어야 높은 성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여기도 굳이 문단을 나눈 이유가.. 모르겠네요. 결론은 ‘낙관적인 태도’보다 ‘현실적 요소’가 중요하다 인데 이것은 매우 잘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라)의 해석보다 대응인데 너무 길어지면서 대응이 짧아져 분량에서도 아쉬워요. 본말전도가 났죠.

2. 대응도 방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술해 버리시면 (가-1)에서 낙관성으로 인해 좋은 성적이나 건강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이들도 (라)에 따르면 현실성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라고 이 대응도 해주셔야 합니다 .